

## 제주도, 2017년부터 LNG 공급

LNG(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가 들어설 제주 애월항 개발사업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주도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LNG 인수기지 건설을 포함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요청했다고 10월21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2016년까지 1620억원을 투입해 기존 애월항 서쪽 일대 6만8820㎡를 매립해 부두와 물양장을 만들고 방파제 1465m, 안벽 270m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방파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2012년 말부터 LNG 인수기지 건설에 들어간다.

2016년까지 2579억원을 투입해 6만1790㎡를 매립하고 LNG 저장탱크 2기(저장능력 1만5000kl)와 가스 송출 설비 등을 갖출 계획이다.

개발공사가 완료되면 3000톤급 LNG선 1척과 3000톤급 모래·시멘트 운반선 2척이 접안할 수 있으며 2017년부터 제주도에 LNG가 공급될 예정이다.

LPG를 LNG로 바꾸어 사용하면 가구당 연간 100만원, 제주도 전체 가구가 사용하면 357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21>